

난세에 빛난 샷별... 6년만에 알린 이름 '이·창·진'

인내

지난해 KT서 KIA로 맞트레이드 시즌 초반 벤치 멤버·대수비 전전

기회

해줄베이커 부진에 선발 투입 내야수 ↔ 중견수 '전천후 야수' 키움전 멀티히트... 잇몸야구 시초

반전

9경기 출전 12안타... 타율 0.480 득점권 타율 0.400...출루율 0.567 역점 홈런·결승타... 주축선수 부상



매 시즌 그라운드에는 '샷별'이 탄생한다. 2019 시즌 KIA 타이거즈에서는 이창진의 이름이 빛나고 있다.

이창진은 지난해 오준혁과의 트레이드로 KT에서 KIA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적생'이다.

스프링캠프에서 '기대주'로 주목받았던 이창진은 시즌 초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뒤 '샷별'이 되어 반전의 시즌을 이끌고 있다.

이창진은 지난 3일 처음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뒤, 16일 경기 전까지 9경기에서 25타수 12안타로 0.48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권 타율도 0.400. 5개의 볼넷도 골라내면서 0.567의 출루율을 찍고 있다.

3월 14일 시범 경기에서 2014년 프로 입단 후 처음으로 담장 밖으로 타구를 날렸던 이창진은 지난 14일 '진짜 무대'에서도 손맛을 봤다.

이창진은 SK 와이번스와 1-1로 맞선 7회 1사 2루에서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프로 데뷔 6년 만에 홈런을 남겼다. 그리고 이날 경기 4-2, KIA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창진은 역전 홈런과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이창진이 만들어내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에 임하는 그의 태도에 팬들은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스프링캠프에 이어 시범 경기를 통해 눈길을 끌었던 이창진이지만 정규시즌 시작과 함께 그는 백업 선수로 한발 물러나 있어야 했다.



이창진은 개막 2연전에서 벤치만 지켰다.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열린 26일 7-13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었던 9회말 대타로 올 시즌 처음 그라운드에 오른 그는 이후 세 경기는 대수비로 들어가 한 타석에도 서지 못했다.

하지만 해줄 베이커의 부진 속에 3일 이창진이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처음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5일 부상과 부진으로 주축 선수들이 대거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이창진의 역할은 더 커졌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렸던 이창진은 식지 않은 타격감을 발휘하며 '잇몸야구'의 중심이 됐다. 김기태 감독이 강조하는 '손목'을 잘 활용하면서 타격 업그레이드를 이뤘다.

또 이창진은 공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며 타석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근성의 야구로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낮선 수비 자리도 어색하지 않다는 게 이창진의 또 다른 매력이다.

KIA 이적 후 내야에 섰던 그는 올 시즌에도 내야

수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창진이 서고 있는 장소는 외야 한가운데다.

스프링캠프에서도 내야수로 훈련을 했지만 연습 경기에서 처음 중견수로 투입된 뒤 '전천후 야수'로 자리를 굳혔다.

'잇몸야구'의 시작점이었던 5일 키움전에서 처음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3차례 출루에 성공한 이창진은 대타 송성문의 타구를 잡아내며 6-4 승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도 채웠다.

이창진은 "타격을 하면서 손목을 잘 활용하고 있

다. 감독님과 코치님들에게 지도 받은대로 시합 때 결과가 나와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수비에서도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님이 시합 때 필요한 것들을 집어서 알려주신다. 항상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 전 이창진은 '빛'으로 자신의 2019시즌을 표현한 적이 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자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창진이 KIA의 '빛'이 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시즌 첫 홈런

텍사스, LA에인절스전 12-7 승



'추추트레인'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올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추신수는 16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4로 뒤진 3회 말 공격에서 시즌 1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그는 선두 타자로 나서 상대 팀 선발 트레버 케이힐의 가운데 볼린 시속 126km 너클커브를 받아쳐 가운데 담장을 넘겼다.

올 시즌 14경기 만에 나온 홈런이다.

추신수는 이날 홈런을 포함해 5타수 3안타 1타점 1볼넷으로 맹활약을 펼쳤다. 시즌 타율은 0.302에서 0.333(48타수 16안타)으로 치솟았다. 두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쏘아 올린 추신수는 4회 세 번째 타석에선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 출루했다. 텍사스는 에인절스에 12-7로 이겼다.

/연합뉴스

'무패' 광주 FC, 다음 제물은 안동과학대

오늘 홈 경기장서 FA컵 32강 상대 전력 우세...초반 기선제압 관전

광주FC가 FA컵에서 2019시즌 무패행진을 잇는다.

광주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동과학대와 2019 KEB하나은행 FA컵 32강 홈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광주는 16강에서 수원 삼성 블루윙즈-포항 스틸러스 승자와 만난다.

올 시즌 FA컵 두 번째 경기를 앞둔 광주의 흐름은 좋다. 광주는 FA컵과 리그 6경기에서 4승 3무 무패행진을 하고 있다.

광주는 안동과학대와의 32강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예정이다.

앞선 64강 전남드래곤즈전에서 로테이션을 통해 1-0 승리를 거둔 광주는 이 경기를 통해 선수단 운영의 폭을 넓혔다. 또 모처럼 그라운드에 오른 선수들도 자신감을 찾았다.

특히 아솔마토프, 윌리안, 두현석 등 전남전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꾸준히 리그를 소화하고 있어 출전 수가 적었던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정다현, 김태윤 등 베테랑 선수들부터 김주공, 손민우, 정현우 등 신인 선수들까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라운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32강에서 만나는 안동과학대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광주에 열세지만 U리그 8권역에서 3승 1패로 3위를 달리고 있다. 4경기에서 10득점을 할 만큼 득점력도 좋다.

지난 FA컵 3라운드에서는 2018 U리그 왕중왕전 우승팀 용인대와 2-2 무승부 이후 승부차기 승리



광주 FC가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동과학대와 2019 KEB하나은행 FA컵 32강 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앞선 전남드래곤즈와의 64강전에서 김준형이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 <광주 FC 제공>

(4-3)를 거뒀다. 광주를 상대로 수비를 두껍게 한 후 '승부차기 전락'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단판 승부제인 FA컵에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반 초반부터 다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해야 경기를 쉽게 풀어들 수 있다.

광주가 이번 경기 승리로 FA컵 우승을 향해 한 발 더 다가설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